

〈바울의 간증〉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9/3(주일) 설교 내용

사도행전 21:37-22:11

1. 바울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들을 향해 자신이 예수 믿게 된 배경과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에게는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나눌만한 간증(스토리)가 있습니까? 밑줄 그은 부분을 토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성난 군중들을 향해 담담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나는 과연 가족이나 교회 등 공동체에 떠밀려서 하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번 질문을 통해 목원들에게,

- ①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 ② 만약 그렇다면, 바울이 위기의 상황속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그 스토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는 있는가?

이 두가지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을 위한 Tip!〉

다양한 신앙수준을 가진 목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을 위해 '잠언 8장 17절'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략)..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 8:17)

간절히 나를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난다 ->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준은 돈이나 명예, 신앙 기간,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간절함'에 있음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보자고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였습니까?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거나 다짐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만남에 대한 간증'이지만, 설교 곳곳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개인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닿는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